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15.(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15.(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박종원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김기열 사무관(044-203-4322)

"미래차 시대를 주도하는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 대폭 확대"

- 산업부 장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 -

-- 미래차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MOU 체결 및 자율주행차 시승 -

□ 백운규 장관은 **'18.1.15.(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산·학·연 대표 유관기관과 기업과 함께 **미래차 분야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방문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전기·자율차 분야 현장행보**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 현장과의 소통 강화 차원**이다.

* ①빅데이터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 팜 ④핀테크 ⑤에너지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⑧자율주행차**

□ 산업부는 미래차 융합 생태계를 주도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17 15억 원 → '18 3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총 7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으로,

* '17년 하반기에 한양대, 인하대, 충북대, 군산대 등 4개 대학을 선정(56명 학생 재학 중) 하였으며, 금년에 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

○ 올해 **산·학·연 대표 기관과 업계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인력양성 사업에 현재 **39개 기업이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 발굴, 취업 활성화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협력 MOU 개요 >

○ **일시 / 장소 :** '18.1.15(월) 15:00~15:30 / 현대차 남양연구소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유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업계] 현대자동차, 엠씨넥스, 와이즈 오토모티브, 비전인, 아이비스, 디지캡, 에이엠텔레콤
[대학] 한양대, 군산대, 인하대, 충북대 등 4개 대학 교수 및 학생대표(총 8명)

○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교육과정 설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연구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발굴, 석박사 전문인력 취업활성화를 위한 상호지원** 등

○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계를 대표해서 7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표도 함께 참여해 미래차 기술 연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미래차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음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래차 시대의 성패**는 자동차는 물론 전자, 정보통신기술(IC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 **'20년부터는 연간 200여명 수준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 양성 기반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백운규 장관은 현대차 연구개발 임원진과 별도의 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의 미래차 기술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현대차에서 직접 제작한 **자율차를 시승하며 자율차의 기술수준을 확인**했다.

○ 현대차는 '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38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 특히, 전기차는 '18년 2차종을 출시하고, 이어 매년 1차종 이상을 출시해 **'25년까지 총 14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대차는 커넥티비티, 5G 통신, 정밀지도 구축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정보기술(IT)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모빌아이(센서), 오로라(자율주행 기술), 시스코(커넥티비티) 등

□ 백운규 장관은 **세계 5위의 세계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기아차**가 세계 **미래차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핵심부품의 기술개발**과 **전기·자율차 기반의 연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제 업계는 물론 **기술력 있는 국내 업계와의 전략적인 협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 업계의 리더로서 **전기·자율차 분야**에서도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현장 사진은 추후 별도 배포 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기열 사무관(☎ 044-203-4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양연구소 방문 및 미래차 인력양성 MOU 체결**

□ 행사개요

○ 일 시 : ‘18.1.15(월) 14:30~16:30

○ 장 소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경기도 화성)

○ 참 석 자

- (산업부) 장관님, 시스템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장
- (현대차) 양웅철 부회장, 박광식 부사장, 이기상 전무 등
- (인력양성 컨소시엄) 참여대학(학생 8명, 교수 4명, 한양대, 인하대, 군산대, 충북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 (인력양성 참여기업) 현대차, 디지캡, 아이비스, 엠씨넥스, 비전인, 와이즈오토모티브, 에이엠텔레콤

○ 방문목적 : 자율주행차 연구현장 방문 및 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미래차 R&D 전문인력 학생 및 관계자 격려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4:30～14:33(03“)	▪ 영접 및 방명록 작성	설계2동 1층 의전실
14:33～15:00(27“)	▪ 현대차 미래차 개발 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15:00～15:02(02“)	▪ 장소 이동(1층→6층)	6층 대회의실
15:02～15:20(18“)	▪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MOU 체결	
15:20～15:30(10“)	▪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개	
15:30～15:35(05“)	▪ 기념촬영	1층 현관
15:35～15:45(10“)	▪ 자율주행차 시승(아이오닉) : 설계 2동 → 안전시험동	
15:45～16:20(35“)	▪ 충돌시험장 방문 및 종료	안전 시험동

붙임2 **미래형 자동차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 **(목적)**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의 新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R&D전문인력 양성 추진

* (사업기간) '17~'21년, (국비) 167억원(17년 15억원 → '18년 38억원)

□ **(추진체계)** 석박사 학위과정, 전문성 강화과정으로 수행되며 39개의 참여기업으로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학위과정)** 미래형자동차기술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 운영

* (한양대) 자율주행제어, 전기차, (인하대) 환경인식, 항법제어, (충북대) 성능 평가, 주행환경인식, (군산대) 상용차주행제어, 환경인식

○ **(산학연계프로젝트)** 인턴쉽, 현장실습,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참여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배출

* 대학별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 프로젝트 성과 극대화 및 취업연계 추진

○ **(전문성강화)** 기업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집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석·박사 과정생, 직무전환 등의 전문성 강화

* 현장경력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旣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신뢰성 확보

○ **(고용연계)** 교육과 고용의 연계 및 성과 확산 체계 구축